

정몽구 현대자동차 명예회장 그룹경영서 완전히 물러난다

마지막 남은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직 내려놓기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마지막 남은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으며 공식적으로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정 명예회장의 현대모비스 사내이사 임기 만료는 내년 3월이지만, 이미 지난해 10월 정 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그룹 회장 자리를 넘겨준 만큼 임기를 유지하지 않고 물러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명예회장은 다음달 24일 열리는 현대모비스 주주총회를 통해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은 1970년 현대건설 입사, 1996년 현대그룹 회장, 1999년 현대차·기아차 회장, 2000년 현대차그룹 회장에 오르며 대한민국 경제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 왔다.

특히 외환위기 상황에서 1999년 기아자동차를 인수해 성공적으로 회생시켜 글로벌 자동차업체로 육성했다. 또한 품질경영을 앞세우며 글로벌 주요 지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 과감한 승부수를 통해 2010년에는 현대·기아자동차를 '글로벌 톱 5' 업체로 성장시켰다.

▶ 관련기사 13면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스포츠동아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www.sportsdonga.com

13번째 별을 쏜 '행복한 우리'

우리은행, WKBL 역대 최다 정규리그 우승...2시즌 연속 리그 정상



우리은행이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우승을 확정했다. 21일 부산 금정구 스포스원파크 BNK센터에서 벌어진 BNK 썸과 원정경기에서 55-29로 이겨 2위 KB스타즈의 남은 1경기(24일) 결과에 관계없이 2시즌 연속 정규리그 우승을 이뤘다. 우리은행 우승의 주역들인 김소니아, 박혜진, 박지현(왼쪽부터)이 우승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제공 | WKBL

박혜진 24점 폭발...BNK 55-29 완파
2위 KB스타즈엔 상대전적에서 앞서
27일 4강 PO...10번째 통합우승 야망



하며 활짝 웃었다.

우리은행은 21일 부산 금정구 스포스원파크 BNK센터에서 열린 'KB국민은행 Liiv m 2020~2021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부산 BNK 썸에 55-29로 이겼다. 정규리그 일정을 모두 마친 우리은행(22승8패)은 1경기를 남겨둔 2위 청주 KB스타즈(21승8패)에 0.5경기차로 앞서 우승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시즌 상대전적에서 우리은행이 4승2패로 앞서있어 KB스타즈가 24일 용인 삼성생명과의 최종전에서 이기더라도 두 팀의 순위는 바뀌지 않는다.

이산 우리은행이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2시즌 연속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

우리은행은 통산 13번째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해 역대 최다우승 기록을 다시 한번 바꿔놓았다. 우리은행은 지난 10년간 정규리그 우승을 놓친 시즌이 2번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 성적을 내고 있다. 또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PO)에서도 정상에 오른다면 여자프로농구 최초로 10회 통합(정규리그·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달성한다.

우리은행은 18일 부천 하나원큐전에서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지을 기회를 맞았지만, 64-66으로 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은행으로선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였던 이날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그만큼 심적으로 부담이 컸다.

하지만 우리은행 선수들은 경기 초반부터 힘을 냈다.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1쿼터 중반 14-0으로 달아나면서 확실하게 기선을 제압했다. 아투 난조로 주춤하기도 했지만, 3쿼터까지 매 쿼터 BNK를 10점 미만으로 묶어 37-19, 거의 더블스코어 차이로 4쿼터를 맞이하면서 사실상 승리를 예약했다. 우리은행은 결국 BNK에 29점만 허용했는데, 이는 여자프로농구

역대 한 팀의 한 경기 최소득점이다.

우리은행은 외국인선수 제도가 잠정 폐지된 이번 시즌 국내 센터 부재로 어려움이 예상됐다. 게다가 시즌 개막 직후에는 에이스 박혜진이 다치는 등 주축선수들의 줄부상이 이어져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찾아온 위기를 이겨내면서 여전히 여자프로농구가 우리은행 시대임을 알렸다. 통합 6연패 이후 2018~2019시즌 KB스타즈에 왕좌를 잠시 내줬지만, 최근 2시즌 연속 정규리그 우승트로피를 가져왔다.

우리은행 위성우 감독은 "선수들이 뽀푼 뽀푼 잘해줬다. 우리가 오랜 기간 꾸준한 성적을 내온 것은 훈련이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다른 팀에 비해 훈련강도가 높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다른 팀 선수들이 우리 팀에 오는 것을 꺼린다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했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27일부터 이미 4위를 확정된 삼성생명 과 4강 PO(3전2승제)를 치른다. ▶ 관련기사 2면

부산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알립니다

'스포츠신문 속의 경제신문'으로 오늘부터 경제면이 달라집니다

매일 업종별 특화면·생생한 기업뉴스 전달

대한민국 스포츠신문 가운데 유료·발행 부수(한국 ABC협회 공인) 3년 연속 1위인 스포츠동아의 경제면이 '스포츠신문 속의 경제신문'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최근 주식 투자 등 경제기사, 특히 기업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독자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오늘부터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전반의 뉴스를 요일별로 3개면까지 집중 보도합니다. 일반 독자가 접하기 힘든 기업 이면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프린트 페이지인 '경제&산업면'에서는 매일 발생하는 경제, 산업계 현장의 핫이슈를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분석해 생생한 뉴스로 전달합니다.

나머지 2개 지면은 업종별 '특화면'으로 차별화 했습니다. 월요일자는 자동차와 IT, 화요일자는 게임과 금융, 수요일자는 유통·식음료와 중화학, 목요일자는 부동산과 건강·의학, 금요일자는 레저 등 각 분야를 1개면씩 다룹니다.

앞으로 기업과도 활발하게 소통하며 산업계의 다양한 뉴스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충실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스포츠동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CJ CHEILJEDANG

남자의 건강기능식품

CJ 전립소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정상적인 면역기능, 항산화, 에너지 활력까지! 100% 미국산 소팔메토

- 기능성 원료인 소팔메토의 인체시험 결과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증가, 야뇨/소변속도 개선, 남성 삶의 질 개선 확인
-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기능성 인정
- 미국 FDA 안전성 기준 충족 프리미엄 원료 사용



※ 09-18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실적 기준



CJ 전립소 소팔메토 파워

맨케어파워 옥타코사놀 3개월분 증정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722-9988